



영주수산대표, 부안수협 찾아 장학금 500만원 전달

부안수협 조합원인 영주수산 박주상대표가 10일 부안수협 (조합장송광복)을 찾아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영주수산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후원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박주상 대표는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조합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며 "부안수협 조합원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도 많은 봉사를 통해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부안수협 송광복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해 소중히 나눔을 실천해주신 박주상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지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조합원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도로공사 전복, 어르신과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정과 웃음이 가득한 이색 나눔 봉사가 전주에서 펼쳐졌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9일 전주시 노인사랑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어르신들과 즐겁고 다정한 시간을 나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북본부 직원 20여 명과 어르신 40여 명이 참여해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는 정성껏 포장되어 가족들과 나누며, 풍성한 명절의 정취를 더했다.

참석한 어르신들은 "직접 만든 케이크를 손주에게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민원실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

남원시는 10일,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허인선 행정복지국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친절행정의 중요성을 강조, 민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민원 상황별 갈등 예방과 민원인과의 소통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직원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며, 민원은 감정이 아닌 기준에 따른 공정한 응대, 따뜻하고 존중하는 대화법 등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친절 응대법 교육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9회 무주 반딧불 축제, 전력그룹사 봉사 활동

청정 자연 속에서 펼쳐진 제29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성공적인 전력공급과 따뜻한 나눔의 손길 속에 더욱 빛났다.

한국전력 무주지사는 축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며 안전한 축제 운영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전력 무주지사와 한수원 무주양수발전소, 한전 KPS, 한전 MCS 등 4개 전력 그룹사 사회봉사단 30여 명은 축제의 주요 행사장인 한풍투와 남대천 등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과 전기안전 홍보부스 운영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과 안전 의식을 전했다. /오상근 기자

‘농업 자립’의 꿈을 함께 키우다

파푸아뉴기니와 한국,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식량 자급자족 실현 다짐

"한국인의 정에 깊은 감동... 쌀 생산으로 우리도 자립하고 싶다"

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PNG)에서 온 특별한 손님이 한국인에게 감동적인 소회를 남겼다.

PNG 국립 쌀·곡물·유지종자 당국의 코렌 마소 집행위원장은 최근 한국 방문을 마치며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에 가족 같은 사랑을 느꼈다"며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농업기술로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 말했다.

농업부 장관과 총리를 보좌하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의 마소 코렌(Maso Koren) 집행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의를 넘어 한국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배우는 매우 의미 깊은 여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룬 협력은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마소 코렌 파푸아뉴기니 농업부장관



먼저 지속 가능한 태양광 발전 개발이다. 한국 기업 JG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1,400헥타르 규모의 노리코리 쌀·곡물 생산 프로젝트 지역에 깨끗한 태양광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라에(Lae) 같은 주요 도시의 에너지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마소 집행위원장은 9월 8일 오전 JG그룹 본사에서 이 재구 회장과 태양광 개발과 관련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는 농업기술 이전이다. 마소 위원장은 9월 8일 농촌진흥청(RDA)을 찾아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첨단 쌀 농업기술과 고성능 농기계를 도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주파푸아뉴기니 한국대사는 최근 오부라-워네 나라 지역의 노리코리 쌀 생산 프로젝트를 위해 쌀 생산 농기계 40만 달러 상당의 40피트 컨테이너 7대분을 전달하기도 했다.

마소 집행위원장은 제임스 마라페 PNG 총리가 평소 한국을 "근면과 자조, 협동의 새마을을 정신으로 국가를 변화시킨 모범 사례"로 꾸준히 언급해 왔으며 자신도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왔다고 말했다.

내년 독립 50주년을 앞둔 PNG가 이런 한국인이 실천했던 새마을운동의 가치들을 받아들이도록 국민들을 격려하고 있다고 한다.

마소 위원장은 "한국인이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발전한 경험

함이 우리나라 농업과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에 최고의 개발 모델을 제공한다"며 "정부 간, 그리고 국민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독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파푸아뉴기니에게 이번 한국과의 협력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마소 집행위원장은 밝혔다.

마소 위원장은 "새로운 파트너십이 체결될 때마다 양국 관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의 우정과 연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반세기 전 폐허에서 시작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경험이 이제 태평양 건너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이만호기자

엄기욱 국립군산대 총장, 복지부 장관 표창 영예

국립군산대학교는 10일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엄 총장 직무대리는 국민 삶의 질 및 중산층과 서민 생활 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03년 국립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된 엄 총장 직무대리는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한국노인복지학회·한국노년학회 이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기부은행 운영위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복지 정책 개발 및 서비스 표준화 등을 위한 관련 연구와 더불어 국립대학교 최초로 사회복지직공무원을 학내에 배치하는 등 사회복지 전문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오고 있다.

국립군산대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겠다"면서 "더불어 사회복지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시, 영창건설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동동은 관내 건설기업 (유)영창건설(대표 장관영)에 '착한가게' 제50호점에 지정, 지난 9월 8일 현판 전달식을 열고, 영창건설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창건설은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 지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장관영 대표는 "비록 작은 일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보탬이 될 수 있어 참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내면, 유성식당에 착한 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성근, 위명량)는 9일 착한 가게 18호점으로 가맹한 유성식당(대표 한연현)에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유성식당은 1976년부터 2대째 이어오고 있으며, 고령자에서 차라 다른 패지보다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해서 곱질과 비계가 톡톡 씹히는 지리산 흑돼지로 유명한 식당이다.

한연현 대표는 "가게를 찾아주는 지역 주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축항동, 광양 다압면 찾아 우호 교류

남원시 축항동(동장 임점숙)은 지난 9월 9일, 자매결연 지역인 광양시 다압면을 방문해 우호 교류를 이어갔다.

임점숙 축항동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다압면 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만남을 갖고, 오는 10월 열리는 남원 3대 가을축제(2025 국제 드론제전, 제33회 흥부제, 남원국가유산 야행)를 소개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남원시의 참관과학과 전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방문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다압면 이장 회의에서도 가을 축제 홍보활동과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 및 남원시의 주요 현안인 제2중앙경찰 학교 유치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등 상호 관심을 나누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33회 전주시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성료

9일 전주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지회장 홍성인)가 주관하는 '제33회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어르신 게이트볼대회'가 송천동 전주시게이트볼구장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대회는 홍성인 지회장과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이도희 운영위원장, 김두봉 도연화회장, 지회 임원 및 34개동분회장 등 100여 명의 내빈과 26개팀(남성부 15팀, 여성부 11팀) 선수와 게이트볼 동호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주시 게이트볼 선수들은 지난 2024년 32회 대회에서 같고 뒤은 실력으로 올 5월 21일 도 연화회장배 대회에서 여자부 우승을 하였으며 6월 10일에서 11일까지 충남 홍성에서 열린 대통령기 전국게이트볼대회에서도 여자부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홍성인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게이트볼은 집중력과 팀워크, 그리고 예의와 질서를 증시하는 고품격 스포츠이며



로, 승패를 떠나 어르신들의 심신단련의 기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권희성 기자

남원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남원시는 10일,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진)가 주관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치러지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보다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은지역사랑봉사단, 여명노인복지센터에 성금 400만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10일,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여명노인복지센터에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지역 사랑성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식은 정성 어린 봉사와 지역사랑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뜻깊은 자리로, 여명노인복지센터 도성숙 대표와 노인수 센터장, 전북은행 노조위원장 정원호 씨와 간부들, 전북은행 양미화 호암로지점장 등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상근 기자

